

가진 것을 나누는 보람을 누리다



최윤길 성주음향 회장은 오로지 스피커 제조 한 길에만 집중해 성주음향을 세계적인 스피커 제조사로 키워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스피커가 안 쓰이는 곳이 없어요. 스마트폰, TV, 자동차, 컴퓨터, 엘리베이터 등 많지요. 일상생활 속에서 8개 정도 스피커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될거예요. 그중 TV에는 우리 스피커가 가장 많을 겁니다.”

최윤길 성주음향 회장의 자부심에는 이유가 있다. 성주음향은 전 세계 TV용 스피커 시장의 선두주자다. 스피커와 첫 인연을 맺은 지 48년, 오로지 스피커 한 길만 걸어온 최윤길 회장의 뜻심은 성주음향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스피커 제조사로 키워냈다.

세계적인 스피커 제조사가 되기까지

최윤길 회장이 스피커 분야에 뛰어든 것은 1976년 스피커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다. 12년간 영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는 전 재산을 걸고 창업에 도전했다. 1988년 회사를 연 그는 초기 유선전화에 들어가는 소형 스피커, 뼈꾸기 시계용 스피커 등을 만들면서 점차 생산품목을 늘려갔다. IMF 외환위기에도 성주음향은 오히려 환율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으며 탄탄한 회사로 성장했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자’는 그의 모토는 그대로 경영 스타일로 이어졌다. 오로지 스피커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앞선 기술로 시장을 빨리 선점하기 위해 과감하게 다섯 번의 인수합병을 실시해 회사 규모를 키웠다. 인수합병한 회사



최윤길 회장은 2016년부터 평창군 내 경로당에 국수를 기부하고 있다.

가 정상화될 때까지 월급을 받지 않기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직원들의 신뢰를 얻으며 노사분규 한 번 없는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이룰 수 있었다. “대표가 솔선수범하고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대우받는 일이거든요. 회사가 어려울 때 제 몫을 먼저 내놓고 회사가 잘 되면 그 성과를 직원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함께 일하는 창업 동료도 있고, 해외 공장에도 20년씩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현재 성주음향은 베트남과 중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중남미, 유럽까지 진출해 있다. 스피커 제품도 다각화해 의료기기용 스피커, 4D 극장에 사용되는 바이브레이터 스피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며 스피커 분야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기부로 보람 찾아

70세가 넘었지만 최윤길 회장은 여전한 현역이다. 지금도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해외 공장 출장을 다녀온다. 오로지 일만 생각하다보니 취미도 없고, 해외출장을 자주 가도 여행사진 하나 없다. 하지만 취미와 여행에서 찾는 즐거움 대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기부로 보람을 찾고 있다.

“중중 고향인 강원도 평창에 가는데, 겨울이면 사람들이 모

여서 따끈한 국수를 나눠먹던 추억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평창군 내 경로당에 국수를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또 모교에 컴퓨터를 기부하고 행사를 후원한 것은 물론, 강당의 음향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알고 전면 교체해 주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마스크를 기부하고 고향사랑기부금도 첫 번째로 참여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기부는 또 다른 기부로도 이어졌다. 최윤길 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아산병원에 어려운 환자를 위해 후원했다.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 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남겨 봐야 싸움만 날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에게는 고기를 잡아주는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어야죠. 좋은 데 써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제가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안에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지만 학비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길 회장은 “오래 전부터 건강검진을 받으며 인연을 이어 온 서울아산병원이어서 믿고 후원했다”며 “앞으로도 후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편집부**



성주음향이 생산한 다양한 종류의 스피커를 보여주는 최윤길 회장.